

비극적 영웅이 추구한 아레테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를 중심으로

김기영*

【요약】

본고는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를 중심으로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가 이전 신화판본에서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영웅으로 주도되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두 영웅이 추구한 아레테의 두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아레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아스는 변화의 원리에 근거한 ‘소프로쉬네’(sōphrosyne)를 거부하고 영웅적 아레테를 구현하기 위해 자결하는데, 그것은 민주적인 공동체 가치관을 거부하고 귀족주의적·자기충족적인 아레테라 하겠다. 아이아스는 ‘자기만의 법’(autonomos)으로 아레테를 제한 없이 추구하고 파멸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경탄과 경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아이아스를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기억하고자 한다.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이 보낸 광기로 처자식을 살해하고 자살을 결심하지만, 테세우스와 대화하며 사태를 심사숙고함으로써 자살을 포기하고 불행을 참고 견디는 고귀함을 보여준다. 이 고귀함이란 과거 아레테를 소프로쉬네로 재구함으로써 내면적 아레테로 변화함을 뜻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서 숭고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헤라클레스가 자살을 포기하는 결정에는 민주주의적·공동체적인 아레테의 실천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이라는 거푸집에 부어져 아테나이의 영웅으로 주도된 것이다.

이처럼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가 추구한 아레테의 두 양상을 서로 비교하면, ‘아레테’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주제어】 아레테(aretē), 소프로쉬네(sōphrosyne), 귀족주의적·자기 충족적 아레테, 민주주의적 아레테, 아테나이의 영웅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I. 들어가는 말

문학의 기능에 대한 연구사를 종합해보면 문학이 쾌락적 기능을 가지거나, 또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는 논의로 압축된다. 문학이 후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면, 문학은 인간의 덕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덕이란 개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왔기에 광범위한 함축과 외연을 가지고 있다. 덕은 희랍어로 아레테(aretē)라고 불리는데, 본고는 이 개념에 국한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레테’란 탁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자질이나 윤리적인 장점을 말한다.¹⁾

기원전 5세기 아테나이에서 융성했던 비극 장르의 경우 ‘아레테’는 비극적 영웅이 지닌 성격과 자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 영웅은 주로 서사시에 나타난 영웅들이 다시 주조되어 재창조된 영웅이다. 서사시에서의 영웅은 귀족의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아레테를 가지고 있다. 『일리아스』 9권에서 포이닉스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아킬레우스의 천막에 가서, 아킬레우스에게 분노를 거두고 전투에 복귀할 것을 간청하는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위대한 마음을 억제하시오./ 그대는 결코 무자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오./ 덕(아레테aretē)과 명예(timē)와 힘(biē)에서 더 위대한 신들의 마음도 돌릴 수가 있는 법이오.
(『일리아스』 9, 496-8) (천병희 옮김)

또 13권에서 이도메네우스는 메리오네스의 아레테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용기(aretēn, 275)는 나도 잘 알고 있소. 그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소/ 가령 지금 함선들 옆에서 우리 중에 가장 용감한 자들(aristoi, 276)이 모두/ 복병으로 뽑혔다고 한다면 - 그럴 때 전사들의 용기(aretē,

1) Christoph Horn, Christof Rapp, *Wörterbuch der antiken Philosophie*(C. H. Beck, 2002), 59.

278)가 가장 잘/ 구별되지요.

(『일리아스』 13, 275-8) (천병희 옮김)

이처럼 아레테는 물리적 힘을 나타내는 비에(biē)와 구별되는, '용기'나 '무용'이
나 '강함'을 의미하고, aristos(용감한), agathos(잘 난, 용기 있는), esthlos(용감한)와
같은 형용사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영웅적 아레테는 영웅들이 명예
(timē)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남을 능가하는 데서 성립한다.²⁾ 그러면
영웅적 아레테는 협력적 가치보다는 경쟁적 가치를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리아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보면 그가 가족과 도시국가를 위해서
아레테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timē)와 명성(kleos)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웅의 아레테는 전통신화 속 영웅들이 비극 장르에서 재창조되면서
새롭게 해석된다.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가 꽃핀 도시국가 아테나이에서 대(大)
디오倪소스 축제의 무대에 오른 영웅은 당시의 여러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주조되는 과정을 거치는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웅의 아레테가 대체로
공동체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영웅들은 몰락으로 비영웅
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영웅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영웅들은 몰락하는 가운데 과거에 지녔던 아레테를 다시 추구함으로써 모범적
태도를 구현하는 비극적 영웅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본고는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를 중심
으로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가 이전 신화판본에서 어떻게 새롭게 영웅으로 주조되
는지를 정리하고, 비영웅적인 상황에 처해 영웅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아레테를 추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두 영웅이 추구한 각각의 아레테
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아레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준영,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 연구』 제33집
(2008), 26-27. 『일리아스』 11.784의 다음 인용문을 참조할 것: aien aristeuein kai hypeirochon
emmenai allōn(항상 일인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했소) (천병희 옮김).

II. 아이아스의 아레테(aretē)

아이아스는 기원전 440년대 경에 공연된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의 주인공이다. 아이아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영웅으로 “아카이아인들의 성채”라는 별칭으로 불리며(II.2.768-9) 영웅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가장 용맹한 장수다.

비극 『아이아스』가 저본으로 삼아 극화한 신화는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놓고 벌인 다투이다. 서사시 권(epic cycle)에 속하는 『작은 일리아스』의 이야기줄거리에 따르면³⁾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가 죽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아테나 여신의 바람대로 그 무장은 오뒷세우스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광기에 사로잡힌 아이아스는 가축 떼를 도륙하고 나서, 자결한다.

비극 시인 아이스퀼로스도 위와 같은 신화를 저본으로 아이아스 삼부작을 극화했다. 아이아스 삼부작은 『무장을 건 싸움』, 『트라키스의 여자들』, 『살라미스의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부작은 전해지지 않지만 몇몇 단편과 여러 전거로 이야기줄거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⁴⁾ 『무장을 건 싸움』은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인데, 그 무장이 오뒷세우스에게 돌아가자 아이아스는 자살을 결심한다. 『트라키스의 여자들』에서 아이아스는 주변세계의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결을 감행한다. 마지막 작품인 『살라미스의 여자들』에서 아이아스의 이복동생 테우크로스는 고향 살라미스에 돌아가지만, 아이아스의 죽음에 분노한 아버지 텔라몬에 의해 추방당하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 퀴프리스로 떠난다.

3) 『작은 일리아스』는 전해지지 않지만, 철학자 프로클로스의 『유용한 지식의 보고』에서 이 작품의 경계를 읽을 수 있다(M. L. West, *Greek Epic Fragment*(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121).

4) 김기영, 「아이스퀼로스의 아이아스 삼부작에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로」, 『서양고전학 연구』 제26집(2006), 20-21.

이러한 신화 전통을 바탕으로 극화한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다.⁵⁾ 작품의 경계를 요약해보자.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건 경쟁에서 오뒷세우스에게 패하게 되자 명예가 손상된 것에 분노해 적들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이 아이아스에게 광기를 보내고 미친 아이아스는 군대의 가축을 도륙한다. 제 정신이 돌아온 아이아스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결심한다. 아이아스는 바닷가에 가서 혼자서 자결한다. 아이아스가 죽고 나서, 메넬라오스와 아가멤논이 아이아스의 매장을 금지하지만, 오뒷세우스가 아가멤논을 설득해 아이아스의 매장을 허락하게 한다. 이렇게 『아이아스』는 아이아스의 자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영웅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라 하겠다. 이 작품은 아이아스가 손상된 명예와 영웅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결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핵심을 이룬다. 이 과정은 아이아스의 세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아이아스의 연설(430-80): 고귀한 인간으로 자결을 결심함.
- ② 아이아스의 연설(646-92): 아레테(*aretē*)와, 변화의 원리에 근거한 소프로쉬네(*sōphrosyne*)의 긴장.
<사자의 보고(753-57): 아테나 여신의 분노가 하루 동안만 지속된다는 변화의 원리>
- ③ 아이아스의 연설(815-65): 자결로 영웅적 아레테를 보여줌.

광기 상태에서 짐승들을 적으로 착각하여 도륙한 아이아스는 제 정신을 차리고 나자 자신이 한 짓에 수치심을 느끼며 운명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숙고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논증적인 연설(①)을 한다(430-80).⁶⁾

이 연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430-59)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며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과거에 아버지가 거두었던

5)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가 아이스킬로스의 아이아스 삼부작을 어떻게 극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김기영, 「아이스킬로스의 아이아스 삼부작에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로」, 27-33을 참조할 것.

6) 연설은 *narratio*(430-59) - *argumentatio et refutatio* (460-70a) - *conclusio*(470b-80)로 구성되어 있다.

커다란 명성을 현재 자신의 불명예와 대조시킨다. 또 만약 아킬레우스가 살아 있었다라면 자신에게 무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이 보낸 광기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요약하고 아이아스는 질문을 던진다.

난 이제 어떻게야 하지?(kai nyn ti chrē dran;, 457)? 신들에게도 나는
분명/ 미움 받고, 헬라스인들의 군대도 나를 싫어하고/ 온 트로이아의
망과 이 들판들조차 나를 미워하는데.(457-9)⁷⁾

연설의 두 번째 부분(460-70a)에서 아이아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다 (potera, 460 ... alla dēta, 466). 첫 번째는 승리의 명예 없이 집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텔라몬에게 커다란 수치가 될 것이기에 참을 수 없는 일이다(ouk esti tourgon tlēton, 467). 두 번째는 아이아스가 혼자서 트로이아를 공격하고 전사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아트리우스의 두 아들만을 기쁘게 할 것이기에 불가능하다(ouk esti tauta, 470). 이처럼 아이아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나서 그것 모두를 기각한다.

이제 아이아스는 연설의 세 번째 부분(470b-80)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타고난 겁쟁이(physin g' asplanchnos, 472)가
아니라는 것을 늙으신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해**(peira tis zētētea, 470b)/ 불운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aischron, 473)이니까.(470b-474)

이렇게 죽음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고귀하게 태어난 자는 명예롭게 살거나 명예롭게 죽어야 한다”(ē kalōs zēn ē kalōs tethnēkenai / ton eugenē chrē, 479-80)라는 격언으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요컨대 아이아스는 자결로 고귀한 인간임을 입증함으로써 영웅적 아레테를

7)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의 인용문은 모두 천병희의 번역본에 따랐다. 하지만 천병희의 번역과 다른 부분은 밑줄로 표기되며 필자의 번역이다.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는 부인 테크메사의 설득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이아스는 아들 에우뤼사케스를 불러 그에게 자신의 무장을 물려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천막 안으로 퇴장한다.

천막의 문이 다시 열리고 아이아스의 시체가 짐승의 시체 더미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아스는 검을 차고 천막에서 나와서 무대 위에 등장한다.

아이아스는 연설(②)(646-92)로 마음이 변했음을 알린다. 단호했던 아이아스도 시간의 놀라운 작용으로 아들과 부인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652-3). 이제 아이아스는 바닷가로 가서 오염을 씻고 그의 검을 묻으려한다(654-9). 헥토르가 선물로 주었던 검이 저주로 바뀐 것이다(661-3). 그래서 아이아스는 복종과 존중의 미덕을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신들에게 복종할 줄 알게 되고/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eithomestha men theois / eikein, mathēsomestha d' Atreidas sebein 666f.)/ 그들은 통치자이니 그들에게 복종해야지./ 암, 그렇고말고.(666-8)

이어서 아이아스는 자연세계에서도 힘센 것들조차도 권위 앞에 굴복한다고 말한다. 겨울이 여름 앞에서 물러나고 밤은 낮에게 물러서고, 바람도 진정되고 바다도 잠자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관찰한 결과, 아이아스는 소프로쉬네⁸⁾를 배우려고 한다.

하거늘 우리는 왜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되지(hēmeis de pōs ou gnōsomestha sōphronein; 677)?/ 나는 배울래(egōg', 678). 이제 와서 나는, 적을 미워하되/ 나중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미워하고,/ 친구에

8) sōphrosyne란 “건강한, 안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소스(sōs)와, “오성, 통찰, 정서, 의지”를 뜻하는 명사 프렌(phrēn)이 합성된 명사로, 건강하고 안전한 감정과 지성을 지니고 온전한 통찰과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Horn and Rapp, *Wörterbuch der antiken Philosophie*, 400).

관해 말하자면 언제까지나 친구로 남지 않을 것처럼/ 베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epistamai, 678) 말이야.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우정이란 믿음직한 항구가 못 되니까.(666-83)

하지만 아이아스는 이렇게 숙고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그가 세운 계획이 잘되리라고 암시하는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 “하지만 이 일들은 잘될 거야”(all' amphi men toutoisin eu schēsei, 684). 연설의 나머지 부분(684b-92)에서 아이아스는 가족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신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685f.). 또 전우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니(egō gar eim' ekeis' hopoi poreuteon, 690). 그대들은/ 내가 일러준 대로 하거나. 그러면 곧 내가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구원받았다(kei nyn dystychō, sesōmenon, 692)는 말을 듣게 되겠지.(690-2)

‘기만 연설’(Trugrede)로 잘 알려진 이 연설에서 아이아스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다. 아이아스는 마음이 변해서 앞의 연설(430-80)에서 자결을 결심한 것을 철회한 것처럼 보인다. 아이아스는 지배와 복종을 반복하는 자연세계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우정의 원리를 인식함으로써 변화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아이아스는 절제하는 것(sōphronein, 677)을 배울 것이다.

이처럼 변화의 원리는 절제나 분별을 뜻하는 소프로쉬네(sōphrosyne)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연관은 프톨로고스(1-133)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오뒷세우스는 광기로 제 정신이 아닌 아이아스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의 운명을 동정하며 이렇게 변화의 원리에 대해 말한다.

무릇 인간사란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신들은/ 분별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사악한 자들은 싫어하지.(hōs hēmera klinēi te kanagei palin/ hapanta tanthrōpeia· tous de sōphronas/ theoi philousi kai stygousi tous kakous.) (131-3)

이러한 변화의 원리에 따르면 영웅의 정체성도 항구적인 것이 못되고, 언제나 변화 가능한 것이다. 위 구절의 숨은 뜻은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분별 있는 자(*tous sōphronas*, 132)나 절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변화의 원리를 인식하고 절제하는 캐릭터가 바로 오뒷세우스다. 그는 소프로쉬네 전형으로 형상화되어, 영웅적 아레테의 항구성을 추구하는 아이아스와 선명하게 대조된다.

위 연설(646-92)에서 아이아스는 변화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함을 깨닫고 소프로쉬네를 배우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이아스는 여전히 바닷가에 가서 실행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아이아스의 (변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과 (소프로쉬네의) 배움이, 그가 잘 되리라고 말한 어떤 계획(684)과 가야만 하는 길이라서 간다는 결심(690)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아이아스가 바닷가에서 홀로 자결하는 다음 장면을 미리 앞당겨 보면 아이아스가 변화의 원리를 인식하고 소프로쉬네를 배우려 했지만, 영웅적 아레테와, 변화의 원리에 근거한 소프로쉬네가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결했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⁹⁾ 아이아스는 오뒷세우스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아이아스가 방해받지 않고 바닷가로 가서 자살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말로 가족과 동료들을 기만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만 연설에서 극적 아이러니라는 소포클레스 특유의 극작술이 구현되어 있음은 틀림없다. 아이아스의 가족과 동료에게는 아이아스가 바닷가로 퇴장해 소프로쉬네를 배우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객에게는 그가 변화의 원리에 근거한 소프로쉬네를 배우려하지만 결국은 자결로 영웅적 아레테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포클레스는 아이아스를 주변세계로부터 분리시켜 혼자서 자신만의 법(*autonomos*)에 따라서 자결함으로써 아레테를 추구하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컨대 위 연설에서 아이아스가 변화의 원리를 인식하고 소프로쉬네를 배우려

9) 김기영, 「아이스켈로스의 아이아스 삼부작에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로」, 22, 주 71.

고 하지만 고귀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때문에, 아이아스의 내면에는 아레테와 소프로쉬네가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아스의 내면에서 긴장관계를 이룬 이 두 가지 관점은 세 번째 에페이소디온(719-865)에서 두 장면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두 장면이 결합하는 방식을 보면 변화의 원리와 아레테의 항구성이 대조되어 있다. 아이아스가 퇴장하고 난 후, 첫 번째 장면에서 사자가 등장해 칼카스의 예언을 전하며 아이아스의 목숨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아이아스님의 살아 있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면 오늘 하루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아스님을 온종일 막사 안에 붙들어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소/ 예언자가 말하기를,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
이/ **오늘 하루만**(tēnd' ... hēmeran monēn, 756) 아이아스님을 괴롭힐
것이라 했소.(753-7)

이러한 보고에서 아이아스의 운명과 관련해 변화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아스가 아테나 여신의 분노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천막 안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하루란 인간사의 기복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131-2), 여기에서 하루는 아이아스의 영웅적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이아스의 목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제 아이아스의 가족과 동료는 아이아스가 연설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807-8) 아이아스를 찾아서 그의 자살을 막으려고 서둘러 황급하게 퇴장한다.

빈 무대가 바닷가로 바뀌고 나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 아이아스가 등장해 검을 땅에 꽂아 세우고 마지막 연설(③)을 한다(815-65). 그는 헥토르의 칼, 즉 “도살하는 자”(815)를 응시한다. 저주를 담은 헥토르의 검이 이제는 친절하게도 급작스러운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우선 아이아스는 테우크로스가 그의 죽음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되라고 제우스에게 기도한다. 테우크로스가 그의 시체를 모든 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826-9). 아울러 헤르메스 신에게 자신을 하데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과 원정군을

저주하며, 자연세계와 작별인사를 나눈다. 아이아스는 도약해서 땅에 꽂혀있는 검 위를 덮쳐 자결한다.

이처럼 세 번째 에페이소디온은 ‘아테나 여신의 분노’와 ‘아이아스의 자살’이라는 두 장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아테나 여신의 분노가 아이아스를 덮쳐서 그가 자살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Bowra에 따르면,¹⁰⁾ 아이아스가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신의 저주에 의해 희생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아스의 자살은 아테나 여신에게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야기된 자기파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여신의 분노와 아이아스의 자살이 겹치면서 신의 계획과 인간의 행위가 한 점에 수렴한다.¹¹⁾ 하지만 아이아스의 자살은 아테나 여신의 분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신의 분노와 아이아스의 자살은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로가 대립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 아이아스의 운명의 외적인 원인(아테나 여신의 하루 동안의 분노)과 아이아스의 자기 파멸의 내적인 원인(영웅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자살)으로 세 번째 에페이소디온의 두 장면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방식은 작품 전체에 걸쳐 있는, 변화의 원리와 아레테의 항구성의 긴장을 엿보게 해준다.

이러한 긴장은 『아이아스』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한 석조상과도 같은 영웅 아이아스가 쓰러지고 난 후, 영웅이 사라진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세계에서 중요한 미덕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제 극 행동은 아이아스 시신을 놓고 아이아스의 친구와 적 사이의 격렬한 논쟁으로 발전한다. 두 진영의 갈등이 유혈사태로 점화되기 직전, 변화의 원리를 실천하는 소프로쉬네의 전형 오뒷세우스가 등장해 두 진영의 갈등을 해결한다. 오뒷세우스는 아가멤논을 설득해 아이아스의 매장 금지 명령을 철회하

10) C. M. Bowra, *Sophoclean Tragedy*(Oxford University Press, 1944), 43-44.

11) G. H. Gellie, *Sophocles. A Reading*(University Press, 1972), 19; R. Winnington-Ingram, *Sophocles. An Interpret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42; R. Scodel, *Sophocles* (Twayne Publishers, 1984), 24.

게 하는데, 그가 내세운 중요한 논거가 아이아스의 영웅적 아레테다.

나는 트로이아에 온/ 모든 아르고스인들 중에 아킬레우스 말고는/ 그만이
가장 **탁월한 전사**(ariston, 1340)을 부인할 만큼/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소이다/ 그대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해코지하는/ 것이니
까요. **용감한 사람**(ton esthlon, 1345)이 죽었다고 해서 모욕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 설사 그를 미워했다 하더라도 말이오.(1338-45)

아가멤논. **용맹한 사람**¹²⁾(ton esthlon)은 마땅히 위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오.(1352)

...

오뒷세우스 나에게는 그의 **탁월함**이 그의 적대감 보다 더 우세하니까요
(nikai gar aretē me tēs echthros pleon, 1357).

이러한 논거로 오뒷세우스는 매장 금지 명령을 철회하게 한다. 오뒷세우스가 죽은 아이아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죽은 아이아스는 오뒷세우스와 친구가 되지 않는다. 죽은 아이아스가 아직도 분노하기에 오뒷세우스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테우크로스가 말하기 때문이다(1393-5). 오뒷세우스가 변화의 원리로 아이아스의 영웅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었지만 죽은 아이아스는 아직도 변화의 원리에 맞서서 오뒷세우스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처럼 마지막 장면에서도 오뒷세우스의 소프로쉬네는 아이아스의 아레테와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이아스』를 소프로쉬네와 아레테 사이의 긴장의 드라마로 보면 아이아스의 자결이 아레테의 추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이아스의 자살은, 아이아스가 영웅적 아레테를 소프로쉬네와 양립할 수 없음을 예리하게 인식한 결과다. 아이아스가 변화의 원리를 인식하고 소프로쉬네를 배우려 했지만, 자결로 영웅적 아레테를 추구함으로써 영웅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¹³⁾

12) “선량한 사람” (천병희)

13) 아이아스의 자살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E. Lefèvre,

둘째, 아이아스의 자살은, 아이아스가 소프로쉬네와 아레테 사이의 내면적 갈등을 경험하고 나서 전자를 거부하고 후자를 선택한 행위다. 아이아스의 자결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고 세상과 화해하려는 소프로쉬네의 행위가 아니다.¹⁴⁾ 또 아테나 여신과 화해하려는 시도¹⁵⁾나 신들의 처벌¹⁶⁾로 볼 수도 없다.

셋째, 아이아스의 자살은 소프로쉬네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개인적 영웅의 아레테를 추구한 것이다. Winington-Ingram이 잘 지적하듯이 아이아스의 자살에서는 아이아스가 영웅의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추구함과 공동체의 요구 사이의 긴장을 확인하게 된다.¹⁷⁾ 이러한 긴장은, 아이아스가 자결하면서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과 원정군 전체를 저주했다는 사실에서도(835-44)¹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아스가 자신의 법(auto-nomos)에 따라서 영웅의 아레테를 제한 없이 추구하면서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자결했기에 영웅으로 재탄생하며 시민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¹⁹⁾

Die Unfähigkeit, sich zu erkennen: Sophokles' Tragödien(Brill, 2001), 62를 참조할 것.

14) Bernd Seidensticker, "Die Wahl des Todes bei Sophokles" in *Sophocle, Entretiens 29*, ed. Jacline de Romily(Fondation Hardt, 1983), 139.

15) M. Sicherl, "The tragic issues in Sophocles' Ajax," *Yale Classical Studies* 25(1977), 96.

16) 이러한 관점은 테크메사, 테우크로스와 코러스가 견지한 것이다(950, 970, 1034-5, 1214f.).

17) Winington-Ingram, *Sophocles*, 60.

18) 아이아스의 자살은 복수를 겨냥한 자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Seidensticker, "Die Wahl des Todes bei Sophokles," 140을 참조할 것.

19) 『아이아스』 1166-7: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기억하게 될(ton aeimnēston, 1166)/ 녹녹한 무덤 안에 누워 쉬시도록 말이다."

Ⅲ. 헤라클레스의 아레테(aretē)

『아이아스』가 공연되고 나서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 기원전 416년경에 공연된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의 과업과 처자식 살해라는 소재를 극화한 비극이다. 이 비극이 바탕으로 삼는 이야기는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에서 읽을 수 있다.²⁰⁾

헤라클레스는 미누아이 인들과의 전쟁 후에 헤라의 질투로 인하여 미치게 되어, 메가라에게서 얻은 자기 아이들과 이피클레스에게서 난 두 아이들을 불에 던졌다. 그리하여 스스로 망명을 별로 부과하였고, 테스피오스에게서 정화를 받는다. 그러고는 델포이로 가서 신에게 어디에 살아야 할지 묻는다. [중략] 그녀[피티아]는 말하기를, 티윈스에서 살 것이며, 에우뤼스테우스에게 12년간 봉사하고, 부과되는 열 가지 과업을 수행하라고 했다. 그 과업들이 다 수행되면 그는 불멸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아폴로도로스 『신화집』 2권 4장 12)(강대진 옮김)

이렇게 헤라 여신이 보낸 광기로 헤라클레스는 처자식을 살해하고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10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비극 『헤라클레스』의 경계를 요약해보자. 헤라클레스가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참주 뤼코스는 헤라클레스의 가족을 몰살하려고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헤라클레스가 귀향해 뤼코스를 살해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한다. 하지만 헤라 여신이 광기의 여신을 보내서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고, 미친 헤라클레스는 처자식을 살해하고 만다. 제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친구 테세우스의 설득으로 인해 자살을 포기하고 테세우스와 함께 아테나이로 향해 떠난다. 이처럼 플롯은 외적인 개입으로 인해 세 번의 반전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헤라클레스가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하는

20) 물론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은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작품으로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보다 후대에 속한 작품이지만, 이 신화집이 에우리피데스가 극화하기 전의 전통신화관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Albin Lesky, *Die tragische Dichtung des Hellenen*(Vandenhoeck & Ruprecht, 1972), 370).

것,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처자식을 살해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것,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자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비극 『헤라클레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완수하고 나서 처자식을 살해하는 것으로 전통신화판본과는 다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러한 전도는 극적인 것으로 작품 내의 불일치를 돋보이게 하는데, 공적과 보상 사이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반박하고 신적인 정의와 인간 우정의 대조를 이루게 한다.²¹⁾ 그런데 이러한 전도는, 헤라클레스가 영웅으로서 최고의 위업을 이루고 나서 헤라 여신이 보낸 광기로 가파르게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영웅의 위대함과 나약함을 역설적으로 결합해 가장 비극적인 영웅상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본래 희극적 색채를 띤 사튀로스 극의 전형적인 캐릭터로 잘 알려져 있다.²²⁾ 사튀로스적 요소를 담은 에우리피데스의 『알케스티스』(438 BC)를 보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는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고 술고래에다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만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고, 아울러 노예에게 쾌락주의 인생철학을 설교하며, 마침내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씨름까지 하여 알케스티스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극을 행복한 결말로 이끄는 캐릭터다. 하지만 비극 『헤라클레스』에서는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문명과 사회를 보호하는²³⁾ 신적인 인간이고 가장 용맹한 자(aristos anēr, 183)이며²⁴⁾ 영웅들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다. Murray가 강조하듯이 『헤라클레스』의 헤라클레스는 조잡한 성격적 특성을 벗어버리고 아레테를

21) Sophie Mills, *Theseus, Tragedy and the Athenian Empire*(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41.

22) Bernd Seidensticker, *Palintonos Harmonia*(Vandenhoeck & Ruprecht, 1982), 137-8.

23) 『헤라클레스』 851-3.

24) 가장 용맹한 자(aristos anēr)란 말은 아리스토파네스 『구름들』 1048과 소포클레스 『트라키스의 여자들』 811에서 찾을 수 있다. 또 12가지 과업의 완수로 불멸의 아레테를 획득했다는 내용이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 1420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신들의 전령 이리스가 말하듯이 헤라클레스의 명성이 너무 드높아서 “만일 그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더 우월할 것이요.”(『헤라클레스』 839-42)라는 우려가 정당해 보이기도 한다.

구현하는 이상화된 영웅으로 구조된 것이다.²⁵⁾

헤라클레스가 아레테를 추구하는 비극적 영웅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은 세 번째 반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처자식을 살해하고 나서 자결을 결심한 헤라클레스는 친구 테세우스의 설득으로 인해 자살을 포기하게 된다. 아이아스가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나서 자결함으로써 영웅적 아레테를 입증하지만, 자결을 결심한 헤라클레스는 자결하지 않음으로써 아이아스가 추구한 아레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정말로 헤라클레스는 아레테를 추구하지 않는 영웅으로 몰락한 것일까? 이 점에 주목하여 테세우스-헤라클레스 장면을 면밀히 살펴보자.

헤라 여신이 보낸 광기로 처자식을 살해한 헤라클레스는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깨닫고 곧장 자살을 결심한다.

어찌 내 자신의 목숨은 아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칼로 내 가슴을 찢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 자식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길이 아닐까? 아니면 불로 내 몸을 태움으로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치욕스런 삶**(dyskleian ... biou)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1147-52) (천병희 옮김)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결을 결심한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그의 자결을 막으려는 듯 갑자기 등장한다(1153-4). 친구의 모습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친구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외투로 감싼다.

테세우스의 등장은 에우리피데스 비극에 자주 등장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를 연상시킨다. 테세우스는 비록 신이 아니지만, 그의 등장은 deus ex machina의 기능과 유사하다. 절망적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테세우스의 등장은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가 자결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과 대조가 된다. 아이아스는 자결을 하기 위해 혼자서 바닷가로 떠나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분리시켰다. 반면 자결을 결심한

25) Gilbert Murray, *Greek Studies*(Oxford University Press, 1946), 113.

헤라클레스는 친구 테세우스의 등장으로 주변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자결을 결심한 헤라클레스가 자결을 포기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헤라클레스-테세우스 장면은 아래와 같이 세 번의 연설과 한 번의 스티코뮤티아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테세우스의 연설(1214-28): 우정을 강조하며 불행에 처한 친구를 돕고자 함.
- ② 헤라클레스-테세우스의 스티코뮤티아(1229-54): 자살의 결심 대(對) 자살의 만류.
- ③ 헤라클레스의 연설(1255-1310): 삶의 가치가 없음을 증명함.
- ④ 테세우스의 연설(1313-38): 친구의 자결의사를 비판하고 살인행위의 정화와 명예의 선물을 약속함.
- ⑤ 헤라클레스의 연설(1340-93): 참고 견디겠다고 하며 자결을 철회함.

가둠에 묶여 옷으로 얼굴을 가린 헤라클레스를 발견한 테세우스가 연설①을 시작한다(1214-28),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philoisin, 1215)에게 얼굴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불행에 처한 헤라클레스와 고통을 나누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ouden melei moi syn ge soi prassein kakōs, 1220). 또 하데스에서 헤라클레스가 자신을 구출해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친구에게 진 빚”(charin ... philōn, 1223)에 보답하고, 불행에 처한 친구(tois philoisin dystychousin, 1225)를 도우려한다. 테세우스는 격언으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고귀한 인간은 신들이 보내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참고 견디며,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네(hostis eugenēs brotōn,/ pherei † ta tōn theōn ge† pōmat' oud' anainetai, 1227-8).

이 연설에서 테세우스는 변함없는 우정²⁶⁾을 강조하는데, 무엇보다도 친구에 진 빚을,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보답하고자 한다. 또 고귀한 인간을

26) 우정의 주제는 다음 행들을 참조할 것(『헤라클레스』 1154-56, 1169-70, 1200, 1202, 1221-25, 1234, 1336-37, 1403-04).

참고 견디는 인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1227-8).

헤라클레스는 침묵을 깨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스티코뮤티아(②) (1229 -54)에서 헤라클레스는 자결할 뜻을 밝힌다.

헤라클레스. 그래서 나는 죽기로 결심한 것일세.(1241)

...

헤라클레스 나는 고통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네.(1245)²⁷⁾

...

헤라클레스. 나는 죽어서, 내가 갔다 온 지하로 돌아가겠네.

테세우스. 자네는 평범한 인간(epitychontos anthrōpou)이나 할 만한 말을 하는군.

헤라클레스. 그리고 자네는 내 고통 밖에 서서 나를 나무라는군.

테세우스. 그토록 많이 참고 견딘(ho polla de tlas) 헤라클레스가 그런 말을 하다니!

헤라클레스. 일찍이 이런 고통은 알지 못했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네(en metrōi mochthēton).

테세우스. 자네가 정말로 인류의 은인이자 위대한 친구(euergetēs brotoisi kai megas philos)란 말인가?

헤라클레스. 인간들은 나를 도울 수 없네. 힘을 쓰는 것은 헤라일세.

테세우스. 헬라스는 자네가 무지하게(amathiai, 1254)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1247-54)

이처럼 테세우스는 대화를 주도하며 헤라클레스의 영웅적 정체성을 일깨우려 한다(1250, 1252). 그런데 “많이 참고 견딘 자”(ho polla de tlas, 1250)란 말은 영웅 오딧세우스를 수식하는 어구인 “많이 참는”(polytlas)²⁸⁾을 떠올리게 한다. 또 자살하는 것을 amathiai(1254)로 죽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인상적인데, 테세우스에게 자살은 무지(無知)의 소치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헤라클레스는 연설(③)(1255-1310)에서, 우선 자신의 인생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살 가치가 없음(abiōton ... nyn te kai parothern on, 1259)을 입증하려고 한다. 과거에 아버지 암피트뤼온이 장인을 죽이고 결혼했고,

27) “이것은 매우 진부한 표현이지만 상황에 맞기 때문에 숭고해지는 것이요.” (롱기누스 『숭고에 관하여』 40.2)

28) 『일리아스』 8.97 등.

헤라 여신이 젓먹이인 헤라클레스에게 뱀을 보내 죽이려고 했으며, 헤라클레스가 건장한 젊음으로 12가지 과업을 모두 수행했지만, 지금은 제 자식들을 살해함으로써 가문의 재앙을 완결하고 ‘마지막 노고를 견뎌냈다’(ton loisthion de tond' etlên ... ponon, 1279)는 것이다.

이것이 내 절망적 상황일세. 내가 사랑하는/ 태바이에 산다는 것은 불경한 것이네. 설사 머문다 해도/ 내가 어떤 신전으로, 친구들의 어떤 모임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저주받은 내게 누가 말을 걸겠는가?/ 아르고스로 간다? 망명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좋아, 그러면 다른 도시로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는 노려보며/ 가시 돌친 험담을 늘어놓겠지/ **이 사람은 전에 제 자식들과 아내를 죽인/ 제우스의 아들이 아닌가? 이 나라에서 꺼지라고 그래!**(1281-90)

이 부분은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1282-4, 1285, 1286) 혈족을 살해한 자로 갈 곳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갈 곳 없음’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수사학은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가 전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아이아스』 457-70). 아이아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몇 가지 가능성을 숙고한 다음 그것들을 기각함으로써(457-70) 자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서 헤라클레스는 삶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ti dēta me zēn dei)? 내 인생이 쓸모없고 저주받은/ 마당에 내가 산다고 해서 무슨 이득(kerdos)이 있지? (1301-2)

이러한 결론에 헤라 여신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며 연설을 마무리한다. 헤라 여신이 헬라스에서 가장 으뜸가는 남자(andr' Hellados ton prōton, 1306)를 뿌리째 뽑아 매쳤고, 아무 죄도 없는 헬라스의 은인(tous euergetas ... ouden ontas aitious, 1310)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헤라클레스는 과거와 현재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서 영웅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헤라클

레스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1306, 1310). 또 테세우스가 참고 견디는 인간을 고귀한 인간으로 규정하고(1227-8) 헤라클레스를 많이 참고 견디는 자(1250)로 부른 것처럼, 헤라클레스는 처자식을 살해한 것을, 12가지 과업에 이어지는 후속 과업으로 간주하며 그 과업을 견뎌냈다고 강조한다(1279, 특히 *etlên*). 또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헤라 여신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했기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극적 영웅의 파멸을 설명해주는 개념인 아테(*atē*)나 휘브리스(*hybris*)나 하마르티아(*hamartia*)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처럼 헤라클레스는 비이성적인 우주적 힘에 의해 파멸한 희생자인 것이다.

이 연설에 대해 테세우스의 답인 연설(④)이 이어진다(1313-38). 그의 연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1314-21)은 헤라클레스가 보여준 운명에 대한 태도를 비판한다.

인간이든 신이든, 운명의 타격에서 안전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1314-5) [중략] 인간에 불과한 자네는 운명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sy men thnētos gegōs/ phereis hyperpheu tas tychas*) 비난에 자네는 어떻게 답하겠나?(1320-1)

이렇게 헤라클레스의 민감함을 비판하고 나서 테세우스는 연설의 두 번째 부분(1322-33)에서 테바이를 떠나서 함께 아테나이로 갈 것을 헤라클레스에게 권유한다. 그곳에서 살인죄를 정화하고, 집과 재산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아울러 몇몇 영지는 헤라클레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헤라클레스 사후에는 제물을 바치고 석조기념물을 세워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연설의 세 번째 부분(1333-9)은 결론에 해당한다. 고귀한 분(*andr' esthlon*, 1335)을 도움으로써 헬라스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eukleias tychein*, 1335), 테세우스 본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친구에게 보답하는 길(*kagō charin soi tēs emēs sōtērias/ tēnd' antidōsō*, 1336-7)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가 보여준 운명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지만, 헤라클레스에게 아테나이의 정화의식, 선물, 사후에 명예로운 매장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웅 헤라클레스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계획을 밝힌다. 처자식을 살해하는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른 헤라클레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귀한 분(1335)으로 불린다. 이런 분을 도우면 헬라스인들의 존경을 받고 아테나이 시민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테세우스의 보은은 폴리스(polis)의 공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친구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상호적 의무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시간에서는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가 동등한 영웅의 위치로서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역사의 시간에서는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인도로 헬라스의 영웅에서 아테나이의 영웅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테세우스의 연설에 답하는 연설(⑤)에서 헤라클레스가 마침내 테세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결의사를 철회하는 반전(peripeteia)이 일어나게 된다(1340-93). 우선 테세우스가 신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한 것(1314-21)을 반박한다.²⁹⁾

이어서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결의사를 거둔다.

내 비록 처지가 심히 딱하긴 하지만, 내가 자살할 경우/ 비겁자라는
 평판이 나지 않을까 심사숙고해보았네(eskepsamēn de kaiper en kakoisin
 ōn/ mē deilian ophlō tin' ekliḗōn phaos, 1247-8)/ 왜냐하면 역경을 맞아
 버틸 수 없는 자는/ 적이 휘두르는 무기에도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
 나는 삶을 참고 견딜 것이네(enkarterēsō bion, 1351).(1347-51)

자살을 포기하는 논거로 자살하는 경우를 비겁자라는 평판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헤라클레스가 심사숙고한 결과다. 이 ‘심사숙고하다’는

29) 헤라클레스는 신들이 법도에 어긋난 사랑을 하고 서로를 사슬로 결박하며 한 신이 다른 신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부정한다(1341-44). 신이 정말로 신이라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45-6).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에 불과하다고 결론짓는다(1346).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신들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희랍어 *skeptesthai* (1347)의 번역어인데, 이 희랍어는 사태를 검토하거나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성적인 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헤라클레스는 자살이란 것을 검토하고 탐구한 결과로, 자살을 포기하면서 “삶을 참고 견딜 것이네”라고 선언하며 테세우스가 여러 차례가 강조했던 ‘참고 견딤’의 고귀한 영웅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연설의 나머지 부분(1385-93)에서³¹⁾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무장에 말을 건네고 나서 다시 무장을 취하는 장면이다.

이 무기들은 늘 나와 함께했건만 얼마나 고통을 주었던가!/ 이 무기들을
 들어야 할지 놓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무기들은 내 옆구리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의 도움으로 그대는 자식들과 아내를 죽였거늘/
 그대의 자식들을 죽인 우리를 아직도 지니고 있군요!** 그래도 이것들을
 들고 다녀? 하지만 어떻게 변명하지? 하지만 내가 헬라스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ta kallist' exeprax'*, 1383) 이 무기들이 없다면/ 나는 적들
 손에 넘어가 수치스럽게 죽지 않을까(*echthrois emauton hypobalōn
 aischrōs thanō;*, 1384)?/ 이 무기들은 두고 갈 일이 아니라, 괴롭더라도
 갖고 다녀야 해.(1377-85)

처자식을 살해했던 무장을 다시 취하겠다는 말은 헤라클레스가 현재의 삶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웅적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영웅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무장을 다시 들어 올림으로써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자살을 결심하고 나서 테세우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살을

30)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352a7 (Horn and Rapp, *Wörterbuch der antiken Philosophie*, 394)

31) 헤라클레스는 아이들의 매장을 당부하고 아버지 암피트뤼온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1358-66). 그리고 테세우스에게 케르베오스를 함께 아르고스로 데려갈 것을 테세우스에게 요구한다(1386-88). 마지막으로 테베 백성들에게 자식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1389-93). 이 연설의 마지막 대사는 “우리는 모두 끝장났고, 헤라의 일격에 망했다오.”(*pantes exolōlamen/ Hēras miai plēgentes athlioi tychēi*, 1392-3)다. 헤라클레스는 아버지 암피트뤼온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테세우스를 따라서 아테나이를 향해 떠난다.

포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테세우스가 사태를 변화시키는 주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테세우스는 소프로쉬네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³²⁾

무엇보다도 헤라클레스가 자살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친 테세우스의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고귀한 인간이란 신들이 보낸 것은 무엇이나 참고 견딘다(1227-8). (2)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운명에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 된다(1314-21). (3)자살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는다(1248, 1250, 1252, 1254). (4)자살은 무지(無知)의 소치다(1254). 다시 말해서, 테세우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헤라클레스는 과거 영웅의 정체성을 재인식·재확인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고귀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살의 욕구를 내성적으로 탐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결을 포기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자결을 포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자발적인 선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Chalk는 1351행(“나는 삶을 참고 견딜 것이네”)을 근거로 인내를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폭력적이지 않은 아레테(aretē)를 헤라클레스가 발견했다고 주장한다.³³⁾ 그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구성은 헤라클레스의 오래된 아레테와 새로운 아레테 사이의 대조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의도에 반응하며 사태를 변화시키는, 구원자 헤라클레스의 아레테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수용하여 감내하는, 고통을 당한 헤라클레스의 아레테 사이의 대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헤라클레스의 인내가 얼마나 자발적이었는지 알기 어렵고, 기원전 5세기 아테나이인들이, 헤라클레스가 자살을 포기하고 감내하는 모습을 아레테로 인정할지가 의문스럽다는 Adkins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⁴⁾

32) Murray, *Greek Studies*, 112-3.

33) H. H. O. Chalk, "Apeith and Bia in Euripides, *Herakl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82(1962), 9.

34) W. H. Adkins, "Basic Greek Values in Euripides' *Hecuba* and *Hercules Furens*," *The Classical Quarterly*, Vol.16, No.2(1966), 209-210.

그러므로 헤라클레스가 자살을 포기하면서 참고 견딤의 고귀함을 구현한 것이 새로운 종류의 아레테가 탄생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아레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첫째, 헤라클레스가 자결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아레테(헤라클레스)를 현재의 소프로쉬네(테세우스)로 재구(再構)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헤라 여신의 분노라는 비이성적인 우주적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이 된 상황에서 헤라클레스는 그 부당한 재앙과 고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자제 내지 절제를 보여줌으로써 과거 아레테를 소프로쉬네로 재구하는 것이다. North가 잘 지적하듯이 에우리피데스 비극에 나타난 소프로쉬네는 ‘자제’를 뜻하는 엔크라테아(enkrateia)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이성적인 것과 갈등하는 이성적 요소의 한 양상이고 정서와 욕구를 통제하는 도덕적인 특성을 지닌다.³⁵⁾

둘째,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재구하려는 아레테는 협력적이고 시민적인 아레테로 공동체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아테나이화(化)한 아레테다. 이제 헤라클레스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테세우스의 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386-88). 개인적인 용맹을 강조하는 아레테는 테세우스의 우정과 설득에 의해 협력적이고 시민적인 아레테로 변화하게 된다. Mills에 따르면 불행에 처해 자살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신 상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인적 영웅의 행동방식이고, 뜻밖의 사건에 대해서 반사회적이고 완고하게 반응하는 것이다.³⁶⁾

헤라클레스가 자결을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아레테를 구현하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참고 견딤으로써 내적인 고귀함을 구현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헤라클레스를 바라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넘어 숭고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³⁷⁾

35) Helen North, *Sophrosyne. Self-Knowledge and Self-Restraint in Greek Literature*(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33.

36) Sophie Mills, *Theseus, Tragedy and the Athenian Empire*, 152.

37) 헤라클레스는 착오나 죄가 아니라, 헤라 여신의 광기라는 비이성적인 우주의 힘에 의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가 테세우스와의 대화에서 고통으로 꺾여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고 말했는데(1245), 이런 표현에서 롱기누스는 숭고의

IV. 맺음말

비극적 영웅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가 추구한 아레테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아이아스는 변화의 원리에 근거한 소프로쉬네를 거부하고 영웅적 아레테를 구현하기 위해 자결한다. 이러한 아레테는 공동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귀족주의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아레테라 하겠다. 아이아스가 자신의 법(*autonomos*)에 따라서 한계 없이 아레테를 추구하며 파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경탄과 경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아이아스를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영웅을 기억하고자 할 것이다.

헤라의 여신이 보낸 광기로 처자식을 살해한 헤라클레스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테세우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결을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불행을 참고 견디는 고귀함을 구현한다. 이러한 구현은 과거 아레테를 소프로쉬네로 재구함으로써 새로운 내면적 아레테로의 변모를 기대하게 해준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서 숭고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헤라클레스가 자살하지 않는 결정에는 민주주의적이고 공동체적 아레테의 실천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영웅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이라는 거푸집에 부어져 아테나이의 영웅으로 구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아스와 헤라클레스 두 영웅이 추구한 아레테의 두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아레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확인된다.

감정을 경험한다고 한다(『숭고에 관하여』 40.2). Halliwell이 지적하듯이 헤라클레스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내하는 모습은, 동정을 넘어서서 영월에 대한 숭고의 관점에 걸 맞는 위대함을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퉁기누스가 생각하는 참된 비극이란 물질적 행운의 상실에서 비롯된 염세주의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헤라클레스가 상실을 넘어서 영웅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은 인간의 내적인 고귀함을 확인시켜주는데, 이는 일종의 불멸을 상징한다고 하겠다(Halliwell in Gregory, 411).

참고문헌

- 김기영(2006), 「아이스켈로스의 아이아스 삼부작에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로」, 『서양고전학 연구』 26, 5-39.
- 정준영(2008),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 연구』 33, 5-44.
- Adkins, W. H.(1966), "Basic Greek Values in Euripides' Hecuba and Hercules Furens," *The Classical Quarterly* Vol.16, No.2, 194-219.
- Apollodorus, 강대진 역(2005), 『신화집』, 민음사.
- Bond, G. W.(1981), *Euripides, Heracles*, Oxford University Press.
- Bowra, C. M.(1944), *Sophoclean Traged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lk, H. H. O.(1962), "Apeth and Bia in Euripides, Herakl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82, 7-18.
- Diggle, J.(1981), *Euripides Fabulae, tomus II*, Oxford University Press.
- Euripides, 천병희 역(2009),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I』, 도서출판 숲.
- Fritz, K. v.(1962), *Antike und moderne Tragödie*, W. de Gruyter.
- Garvie A. F.(1998), *Sophocles: Ajax*, Aris & Philips.
- Gellie, G. H.(1972), *Sophocles. A Reading*, University Press.
- Gregory Justina (ed.)(2005), *A Companion to Greek Tragedy*, Blackwell.
- Hallerlan, Michael R.(1988), *The Heracles of Euripide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iwell, S.(1995), *Aristotle Poe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merus, 천병희 역(2006), 『일리아스』, 단국대 출판부.
- Horn, Christoph, and Rapp, Christof(2002), *Wörterbuch der antiken Philosophie*, C. H. Beck.
- Lefèvre E.(2001), *Die Unfähigkeit, sich zu erkennen: Sophokles' Tragödien*, Brill.
- Lesky, Albin(1972), *Die tragische Dichtung des Hellenen*, Vandenhoeck & Ruprecht.
- Lidell, J. D., Scott, R. and Jones, H. S.(1996),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Lloyd-Jones H. and Wilson N. G.(1990), *Sophoclis Fabulae*,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s, Sophie(1997), *Theseus, Tragedy and the Atheni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Gilbert(1946), *Greek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 Nicolai, W.(1992), *Zu Sophokles' Wirkungsabsichten*, C. Winter.
- North, Helen(1966), *Sophrosyne. Self-Knowledge and Self-Restraint in Greek Litera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 Pfister, Manfred(1988), *The Theory and Analysis of Dra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dewaldt, W.(1929), *Sophokles, Aias and Antigone. Neue Wege zur Antike* 8, 61-117.
- Scodel, R.(1984), *Sophocles*, Twayne Publisher.
- Seidensticker, B.(1982), *Palintonos Harmonia. Studien zu komischen Elementen in den griechischen Tragödien*, Vandenhoeck & Ruprecht.
- Seidensticker, B.(1983), "Die Wahl des Todes bei Sophokles" in *Sophocle, Entretiens* 29, ed. Jacline de Romily(Fondation Hardt), 105-153.
- Sicherl, M.(1977), "The tragic issues in Sophocles' Ajax," *Yale Classical Studies* 25, 67-98.
- Sophocles, 천병희 역(2008),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도서출판 숲.
- West, M. L.(2003), *Greek Epic Frag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Winnington-Ingram, R.(1980), *Sophocles. An Interpre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Focusing on Sophocles' *Ajax* and Euripides' *Heracle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jax and Heracles are reshaped and remodeled as tragic heroes who differ from the hero found in traditional myth. Furthermore, it confirms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aretē* by comparing the two modes of *aretē* of Ajax and Heracles.

After having slaughtered the herd of cattle in a state of madness, Ajax refuses to accept *sōphrosyn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ange and commits suicide in order to confirm his heroic *aretē*. But this *aretē* can be seen as his negation of democratic and community value and as aristocratic and self-sufficient *aretē*. This kind of *aretē* moves us to admire Ajax with awe and to view him as an object of worship.

Heracles, seized by madness brought on by the goddess Hera, slaughtered his wife and children. When he comes to his senses, he decides to kill himself, but after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seus and reflecting on the situation, he refuses to commit suicide, thus representing the nobility by which he endures the disaster and suffers from it. This representation means his transformation of possessing inner *aretē* by reconstructing his past *aretē* by means of *sōphrosyne*. This leads us to transcend the emotion of pity and fear and to experience sublimity. In addition, Heracles' refusal to kill himself reflects his learning to practice community value and democratic *aretē*. That is to say, Heracles is reshaped and remolded as an Athenian hero in the cast.

In conclusion, the comparison of the two modes of *aretē* after which Ajax and Heracles strive enables us to confirm the radical change of the concept of *aretē*.

【Key words】 *aretē*, *sōphrosyne*, aristocratic and self-sufficient *aretē*, democratic *aretē*, an Athenian hero

논문 투고일: 2011. 09. 10

심사 완료일: 2011. 10. 17

게재 확정일: 2011. 10. 21